

이봉련 “요즘 틀면 나온다고 ‘수도꼭지’…기분 좋아요”

JTBC ‘런온’·넷플릭스 ‘스위트홈’ 등 활약

신세경과 자매 같은 케미…“따뜻한 현장”

2005년 연극 배우로 데뷔해 영역 확장

“도전하고 싶은 장르, 액션…은둔 고수”

“주변에서 틀면 나온다고 ‘수도꼭지’냐고 하더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사랑받아서 기분이 좋다”

JTBC 드라마 ‘런 온’ 종영을 앞두고 화상으로 만난 배우 이봉련은 “기억에 남는 건 내가 매이 언니같은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의 매이 언니가 되고 싶다”는 말이었다며 “그런 마음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봉련은 ‘런 온’에서 영화 번역가 ‘오미주’(신세경)의 선배이자 함께 살고 있는 ‘박매이’ 역을 맡았다.

작은 영화사의 대표로 태평하고 쿨한 성격이며, 오미주를 살뜰히 챙기는 언니다.

“20~30대 시청자들이 매이에게 기대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언니나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세경과 자매 같은 케미도 호평을 받았다. “신세경 배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따뜻한 현장이었죠. 신세경 배우가 갖고 있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그 덕에 현장이 더 따뜻해졌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박매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자란 오미주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 극 중 든든한 언니 모습을 보여준 이

봉련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그는 “빈틈도 많고 수다스럽다”며 “매이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봉련은 ‘수도꼭지’라는 별명처럼 요즘 핫하다. JTBC 드라마 ‘런 온’부터 넷플릭스 ‘스위트홈’,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까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봉준호가 주목하는 배우…“연극 통해 영화 ‘욕자’에 캐스팅”

이봉련은 속을 알수 없는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압권이다. 이미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에서는 아이를 잃고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정신없는 엄마’(명숙)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역할이 쉽지는 않았다. 대부분을 철저히 보고 이 인물의 감정을 상상하고 입입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다”며 “그래도 누군가 공감하고 마음이 쓰였다면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로는 액션을 꼽았다. ‘스위트홈’에서 액션을 경험한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격적으로 해볼 의향이 있다고 했다. “잠깐 해봤지만, 액션이 잘 맞는다. 배우로서 땀을 흘리내는 게 좋다. 은둔 고수,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웃었다.

지난 2005년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로 데뷔해 연극 ‘날 보러와요’, ‘민주전선’, 뮤지컬 ‘빨래’, ‘그날들’ 등 수많은 무대에 올랐던 이봉련은 드라마, 영화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는 “꾸준히 작업을 해왔더라. 물론 아직 모자라고 갈 길이 멀다”며 “그래도 필그라운드를 살펴보니까 선택을 잘해온 것 같다. 배우는 기회가 왔을 때 단역이든 조연이든 자신의 몫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 그것 역시 훈련”이라고 말했다.

연극 무대는 자신의 토양이다. “드라마나 영화, 연극 무대 모두 같은 상상”이라며 “(연극은)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 배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춰버린 공연계의 걱정도 앞섰다. 이봉련은 “공연계가 큰일났다. 저도 지난해 12월 국립극단 연극 ‘헛웃’을 3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공연 전날 취소됐다. 그때 다들 망연자실했다”며 “공연 무대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영화 ‘욕자’로 함께 작업했던 봉준호 감독과의 일화도 전했다. 봉 감독은 이봉련을 “가장 주목하는 배우”로 꼽기도 했다.

“감독님이 제가 속한 극단 ‘골목길’의 연극에요. 직접 예매해서 연극을 보러 오신 적이 있죠. 그때는 제가 봉 감독님을 모를 때예요. 그 연극을 통해 제가 ‘욕자’에 캐스팅됐죠. 작은 소극장이었는데 감독님이 너무 티가 났

어요. 관객석이 캄캄하지만, 저희는 다 보이죠. 다들 누가 봐도 ‘봉 감독님’이라며 입을 모았죠.(웃음)”

영화 ‘기생충’으로 주목받은 배우 이정은도 “잠깐 등장해도 기승전결을 다 보여주는 배우”라며 이봉련을 극찬한 바 있다.

“후배 배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옛날에 뮤지컬 ‘빨래’에서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무대에 서진 못했지만, 제가 해낼 때 많이 도와주셨죠. 적적 연기해내며 순간의 집중력이 엄청난 분이예요. 존경하는 선배님이죠.”

작품 속 신스틸러 등장…“배우, 적성 맞지 않는 게 오히려 동력”

16년차 베테랑 배우인 이봉련은 조연과 단역을 가리지 않고 영화와 드라마에 ‘신스틸러’처럼 등장한다. 영화 ‘세지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국제수사’, ‘82년생 김지영’, ‘엑시트’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봉련은 “적성에 맞지는 않는다”고 웃었다. 그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적성과 상관없이 하게 된다”며 “어느 날 이 일이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을 때 오히려 동력이 생겼다. 적성에 맞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주인공에 대한 갈망은 없을까. “사실 주인공은 연극 무대를 통해 경험했고, 진행 중이다. 주연을 해야 한다는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니다. 제 몫을 충실히 하면서 제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연으로 서사를 끌고 갔을 때의 재미가 있어요. 매체 활동을 하며 (주연이) 아니게 됐을 때 어려움도 겪었죠. 인물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서



사자 짝을 경우 힘에 부칠 때가 있어. 관객들은 나라는 인물이 생경할 수 있어 자칫 과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얼굴이 익을수록 이 배우가 반가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3월에 극단 ‘골목길’의 연극 무대에 서는 이봉련은 차기작으로 다시 만남을 약속했다. 앞으로 다양한 작품 속 낯선 배우로 보이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지금처럼 배우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싶어요. 익숙하지만, 한편으로 낯선 사람이기를 바라죠. 관객들에게 배우로 오랫동안 각인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펜트하우스2’ 주단태 “상상 뛰어넘는 악행 잇는다”

오는 19일 첫방송

오는 19일 첫 방송을 앞둔 SBS 새 금드라마 ‘펜트하우스2’의 별명캐릭터 ‘주단태(엄기준)’의 티저 사진이 공개됐다.

‘펜트하우스2’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린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 이야기를 담는다.

엄기준은 ‘펜트하우스’ 시즌1에서 심수련(이지아)의 남편이자 제이킹 홀딩스의 대표로 부동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주단태 역을 맡아 열연했다.

강박증이 심한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있어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구설도 용납 못 하는 냉철한 캐릭터다.

쌍둥이 주석훈(김영대)과 주석경(한지현)을 거절해 대하는 것은 물론, 끔찍한 소유욕을 바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행을 선보였다. 남들 앞에서는 젼뜰하게 보이지만 이면에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이중적인 모습부터 천사진(김소연)과의 위험한 밀회, 살인마처럼 서슴치 않아 소름 돋게 했다.

엄기준은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과



표정, 목소리 톤으로 분노부터 분노부터 살의, 광기, 내면의 이복까지 ‘악의 끝판왕’ 주단태를 통해 이제껏 본 적 없는 독보적인 악인을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공개된 사진에는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수트 차림에 안경을 착용해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주단태의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짓고 있는 비릿한 미소와 냉기가 흐르는 무표정한 표정, 싸늘하게 번뜩이는 눈

빛을 보이며 시즌1에서의 악인의 재등장을 예고했다.

제작진은 “엄기준은 자신만의 색깔과 결을 담은 연기로 주단태를 200% 소화, ‘펜트하우스’에 대한 몰입도를 최고조로 이끌었다”며 “상상을 뛰어넘는 악행을 이어나갈 ‘펜트하우스2’ 주단태의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펜트하우스2’는 오는 19일에 첫 전파를 탄다.

배우 전소민 연애중?…SNS에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배우 전소민이 사랑과 연관된 글을 게재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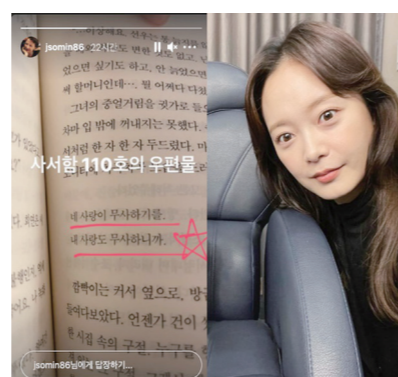
전소민이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는 이도우 작가의 소설 제목이다.

전소민은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라는 구절에 밀출과 별표까지 치며 크게 공감했

다.

이에 팬들은 전소민이 혹시 사랑에 빠진 것 아니냐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전소민은 지난해 동갑내기 배우 오동민과 열애설이 불거지자 SBS ‘런닝맨’을 통해 “이제는 하다하다 남자 친구들까지 제 앞길을 막는다. 방탈출 게임, 캠핑을 하러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튜버 조두팔, 데이트폭력 폭로…“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 글 남겨

최근 공개 연애 중이던 유튜버 조두팔이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조두팔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조두팔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지금도 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에 기대 아닌 기대하며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은 내 인생에서 제일 최악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미래 계획하며 동거까지 하고, 서로에게 애뜻한만큼 기쁠 수 있는 사이였고, 이젠 나에겐 그 사람이

전부일만큼 없으면 안될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고 자꾸만 신뢰가 깨지는 행동들로 인해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다 깨져버렸다”고 말했다.

조두팔은 “반복되는 거짓말들과 케면캠수록 나오는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어느새 난 많이 지쳐있었고 여자 관련된 일이라는게 너무 싫었다. 그런데도 놓치지 않았던 내가 너무 한심하다. 그냥 그 사람을 미고 싶었던 것 같고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다 몇 번 다뤘고 다투면 다들수록 그 사람의 손버릇이 점점 심해

져만 갔고 결국엔 최악의 상황까지 가버렸다. 그 사람은 내가 폭력을 제일 싫어하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이별을 말할 때마다 나에게 폭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두팔은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나도 원망스럽고 개도 너무 밉다 그냥 죽고싶었다. 너무 그 외에도 말 못할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지만 그냥 말하기 싫다”며 “지금 내 인생은 정말 최악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될 것도 정말 많았고 웬지 모르게 지금껏 내 주변 사람들과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두팔은 평소 메이크업 영상과 먹방 영상 등으로 활동했다.

42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했

‘여신강림’ 종영 기념 단체 사진 NO 마스크 논란

마스크 쓴 사람 10여 명이 채 되지 않아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 출연진· 제작진이 종영을 기념해 찍은 단체 사진

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속 인물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차은우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여신강림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제작진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호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중 단체 사진에는 차은우를 비롯해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깝게 붙어 있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10여 명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은우의 SNS 댓글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단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